

열사의 땅에서... UAE군과 호흡 맞춰 '연합전술강하'

아크부대 18진, 아부다비 인근서 훈련 사막지형 공중침투기술 집중 숙달

한·UAE 특수부대원들이 열사의 땅 창공에 하얀 낙하산 꽃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UAE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18진은 3일 "UAE군 특수부대와 아부다비 인근 스웨이한 지역 내 'OMD #24 훈련장'에서 연합 전술강하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8년 만에 아크부대와 UAE군의 연합 전술강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아크부대와 UAE군은 고공 강하팀을 대상으로 한 연합 고공강하 훈련만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훈련에서 아크부대와 UAE군 장병들은 연합 특수작전 수행 중 요구되는 공중침투 기술을 집중적으로 숙달했다. 특히 아크부대 장병들은 생소한 사막지형에서 완벽한 공중침투를 위해 항공기 이탈·공중동작·착지 등 강하 전 지상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본격적인 훈련은 UAE군의 C-130 수송기를 타고 이륙하면서 시작했다. 수송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 1500피트 상공에 올라서자 강하조장이 이탈을 지시하는 수신호를 보냈다.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아크부대와 UAE군 장병들은 망설임 없이 창공에 몸을 던졌다. 곧이어 뜨겁게 타오르는 모래사막 위 하늘에 낙하산 꽃이 차례로 피



UAE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18진과 UAE군 특수부대 장병들이 연합 전술강하훈련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어났다. 장병들이 능숙한 공중동작을 바탕으로 목표지점인 드롭 존(DZ)에 정확히 착지하면서 이날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수전2팀장 이태성 대위는 "철저한 사전 훈련준비, 고강도의 지상훈련, '하나 되어

임무 완수'라는 열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첫 연합 전술강하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적 훈련을 바탕으로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낙하산 포장반 방호찬·이지선 상사는 "훈

련 전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팀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확인·지도해줌으로써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기본과 기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남은 임무도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웅동수원지 벚꽃단지' 시민 공원으로 조성

진해기지사령부, 민·관과 협약식 일제 때 조성 저수지... 내년 추진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접근이 불가했던 지역 명소가 시민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와 창원시는 3일 웅동수원지 벚꽃단지 개방을 위한 민·관·군 협약식을 개최했다.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류효상(준장) 진기사령관과 허성무 창원시장, 배종량 웅동1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웅동수원지 벚꽃단지 개방을 위한 민·관·군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191번지에 있는 웅동수원지는 1914년 일제가 독을 쌓아 아홉밭골, 분산골, 달판 개울 등에서 흐르는

물을 모아 완공한 저수지다. 수원지 인근에는 3만2000㎡에 달하는 면적에 벚꽃이 식재됐다. 1968년 북한 무장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1·21 사태' 이후 폐쇄됐다.

진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창원시와 수원지 개방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민·관·군 협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는 약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2년에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개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 사령관은 "민·관·군 협약에 따라 웅동수원지가 진해 균형제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해군은 수원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해군으로 거듭



3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웅동수원지 벚꽃단지 개방을 위한 민·관·군 협약식에서 류효상(맨 왼쪽) 해군진해기지사령관, 허성무(가운데) 창원시장, 배종량 웅동1동 주민자치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승우 하사

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오늘 협약식은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닫혀 있다가 개방된 서울 북악산 사례처럼 이곳을 진해 동부 지역의 명소

로 재단장해 관광인프라를 늘리고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민·관·군이 하나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수 기자

장병 고민 '인공지능 챗봇' 상담 제안 최우수

육군전투준비안전단, 안전정책 발전 제안 공모전 우수작 선정

장병들의 고민을 24시간 상담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AI chatter robot)' 운영 아이디어가 '2021년 전반기 안전정책 발전 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공모전을 개최한 육군전투준비안전단은 3일 "육군의 안전정책과 제도발전 분야에 총 164건이 제안됐다"면서 "최우수 제안은

2023~2027 중기계획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역을 앞두고 '인공지능 챗봇 병영생활 상담관' 아이디어를 내놓은 이재원 예비역 중위는 "병영생활상담관의 숫자도, 상담받을 수 있는 장병의 수도 제한돼 적시적인 병영생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근 입대하는 Z세대의 경우 비대면과 온라

인 대화 방식을 선호하므로, 챗봇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2분기 우수제안으로는 군수사령부 방사능안전관리담당 3인이 제안한 '전투준비안전단 내 방사선 안전관리 기능 편성', 과학화전투훈련단 김정수(중사) 분대장관통제관의 '피로도 측정기 도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육군참모총장 상장, 분기 우수 제안자에게는 전투준비안전단장 상장이 수여된다. 김철환 기자

제201214-중-117053호

라섹수술, 스마일수술도

EYE REUM 아이리움안과의원

02-3420-2020

신분당 ② 강남 2번출구 바로 연결